



## 정우프린팅, Versa UV LEC-300 도입 UV프린팅과 커팅이 동시에 척척

정우프린팅(대표 권오성)은 최근 UV 프린팅과 커팅이 동시에 가능한 'Versa UV LEC-300'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입했다. (주)디젠이 공급하고 있는 이 장비는 화이트잉크와 투명광택잉크로 질감과 입체감 표현까지 표현할 수 있어 고품질 고부가가치 출력시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평을 듣고 있다.

소비자들을 상대하는 일선 출력전문점에서, 그것도 1호점으로 도입한다는 것은 부담이 될 수도 있으나 정우프린팅은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자사의 운영시스템에도 적합하다고 보고 이 같은 투자를 선택했다. 이는 꾸준하게 전문 출력이라는 외길을 걸어왔고 철저한 품질 관리에 대한 노하우를 살려 과감한 투자의 길을 선택했다는 것이 권

대표의 말이다.

### 일반 소비자 상대로 고품질 출력 서비스

정우프린팅은 현재도 영업 중인 정우공사의 한 부서였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컬러복사기를 도입할 정도로 앞서가는 회사였다. 현재의 정우프린팅은 97년 전문출력을 하는 점포로 시작했고, 2003년에 부서를 인수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후지제록스, HP 등의 장비로 주로 학생들이나 고급인쇄를 원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오고 있다. 특히 중점을 두는 것은 장비에 대한 이해를 높여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고 조정해 고객의 요구에 최대한으로 맞추는 것이다. 작은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고객들은 그 차이를 작은 것으

로 보지 않았고 일부러 먼 곳에서부터 정우프린팅을 찾아올 정도였다.

뿐만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맞춰 온라인 공간에서의 마케팅에도 관심을 돌리고 블로그를 개설하고 고객과 보다 가깝게 소통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그 효과는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 앞으로 특수효과 지원하는 데 주력할 것

아무래도 권 대표의 화두는 새로운 장비와 그의 활용방안이었다. 이는 예전에 장비들의 가격이 2~3천만 원 수준이었으나 최근 들어서는 고가화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고객들은 질감과 입체감 표현 등 다양한 특수효과를 원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존 장비들의 2배가 넘는 거금을 투자해 이번에 새롭게 설치한 'Versa UV LEC-300'은 CMYK에 화이트 잉크, 투명광택잉크까지 지원해 디자이너가 원하는 다양한 표현을 효과적으로 연출할 수 있어 사용하면서 상당한 만족을 얻고 있다고 말한다.

투명광택잉크를 여러 층으로 출력, 입체감을 두드러지게 표현할 뿐만 아니라 로고, 물방울 등의 포인트 출력도 가능해 다양한 기법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화이트 잉크를 이용한 아름다운 디자인 연출도 가능하기 때문에 정우프린팅에서 추구하는 고급인쇄의 구현에도 잘 들어맞는다는 것이



다. 또한 소재에 거의 제한이 없는 UV시스템이어서 라벨, POP 디스플레이나 포스터용 금속 표면을 비롯한 다양한 미디어에 출력할 수 있다는 점과 이 장비 하나로 출력은 물론 출력 후 커팅까지 가능하기에 높은 생산성을 갖춘 것에 만족하며 최고 해상도 역시 1440dpi이며 출력물의 내구성도 좋다고 말한다.

권오성 대표는 “장비를 직접 사용해보니 품질이 기대 이상으로 뛰어난 것으로 드러나고 있고 활용도가 높아 만족하다”며 “1호기를 도입한 것은 행운이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타사와는 차별화된 출력서비스로 고급출력시장을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고객이었던 고품질 출력 시장의 수요층인 기획실과 디자인실, 학생 등을 대상으로 더욱 적극적인 마케팅을 전개하면서 부분코팅, 엠보코팅, 책표지 북아트 시장과 금지 은지 인쇄를 많이 하는 POP 디스플레이 시장에도 진출할 계획이다. 특히 그라비아 인쇄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샘플 작업이 안 되다보니 고객의 어려움과 아쉬움이 있었지만 새장비의 도입으로 이를 해결, 시안 출력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현재 관심을 점점 높아지고 있는 형편이다.

물론 출력물의 가격이 비교적 높지만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장비여서 주요 작업이 될 것으로 보이는 그라비아 인쇄 샘플 시안 작업을 비롯한 고객들로부터 가격에 대한 거부감은 거의 없고 고객들의 호응이 높다는 평가를 받아 오고 있다.

### 전문출력사로 차별화, 고급화에 최선

대형 UV시스템은 일반적으로 가격대가 비쌀 뿐만 아니라 장비를 설치하려면 많은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선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업체에서 구입하기에는 장소의 제약이 많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정우프린팅은 고객이 요구하는 수준의 출력서비스를 하기 위해, 또한 최근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화이트 잉크와 투명광택잉크를 지원하면서 출력폭이 736mm여서 좁은 사무공간에도 도입이 가능한 'LEC-300'을 도입했고 지금까지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권 대표는 앞으로도 고품질 디지털프린팅 출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가격경쟁을 뛰어넘는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승부할 것이며 장기적인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 ☎ 김상호 부장 kshulk@print.or.kr